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공동기획전

진안군, “문화누리카드 알고 사용하세요”

지난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문화예술·여행(축제)·체육활동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오산 홍성모 작가 초대전’ 개최 2월 6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전관서 진행... 19일 행사 오픈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공동 기획한 ‘오산 홍성모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기획전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교류와 지역 문화계의 네트워크를 촉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함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전북예술회관 전관에서 진행된다. 행사 오픈은 19일 오후 3시 전북예술회관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산 홍성모 작가는 전북 출신 작가로 다양한 분야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실경산수화이다.

이담미술상, 한국 전문인 대상,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 초대전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산 홍성모 작가의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기획전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특별한 전시”라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도 관람하고, 전북의 환한 새 기운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오산 홍성모 작가 초대전 포스터

진안군은 올해 문화소의계층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이 오는 2월부터 사용 개시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에 1인당 연간 13만원이 지급되며, 진안군민은 1,911명이 대상자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은 올해도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문화누리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반면에 △복지시설 거주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자, △세대주 합산 카드 사용자는 자동 재충전이 안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일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소의계층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이용 안내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 상품’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전국 23개 도장서 938명 태권도원 다녀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 상품(이하, 가성비 상품)’을 올해도 이어가며 일선 태권도장의 수련 및 체험활동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3년 가성비 상품에는 충북 MAS 태권도장을 시작으로 경기 여주 청도태권도장, 부산 양정태권도장, 경북 오성태권도장, 울산 인제태권도장, 전북 가죽태권도장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23개 도장, 938명이 다녀갔다.

특히, 세계태권도전문트레이너협회와 용인대학교태권도동맹회 등 팸투어에 참가한 태권도장 관장과 지도자들로부터 가격 및 콘텐츠 내용 등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기도 했다.



태권도원 체험관 YAP에서 태권도 체험실 콘텐츠에 참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도 10인 이상의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당일’과 ‘1박 2일’로 구성된 가성비 상품을 판매한다. 당일

상품은 태권도원 입장과 모노레일 탑승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각종 콘텐츠 이용료를 ‘대폭 할인’하는 등 초등학교 1인 기준 1만1,000원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박 2일’ 상품은 객실 이용요금 50% 할인을 비롯해 수련장 무료 대관, 체험관 YAP·플레이인 할인과 함께 식사와 콘텐츠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초등학교 기준 3만원대로 구성,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말 출시한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 상품에 전국의 도장과 수련생들이 찾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에는 더 많은 도장과 수련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태권도원을 찾아 수련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태권도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마케팅부(063-320-0123)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대-대만 국립정치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16일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와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술 관련 연구자료 및 데이터 교환, 공동연구 활동 상호 지원,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교육 관련 상호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협동 번역 사업, 인공지능 한문 번역 및 해석 사업, 인



분한국플러스사업(HK+) 등을 통해 국내 한국

학 중심 연구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학과장 박병선)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유교·한자 문화권의 핵심인 한학(漢學)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학과로서 한국과 일본, 서양의 동양학 연구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날 국제 연구포럼도 함께 진행했다.

변주승 소장은 “두 기관이 유교·한자 문화권의 학술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 간 학술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 한국어문학과장은 “학술 활동을 통해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 전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서양 명화, 거장들의 시선’·지역작가 전시 등 진행

삼례문화예술촌이 신년을 맞아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은 첫 번째로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 전시 ‘서양 명화, 거장들의 시선’을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철로 제작한 레플리카 작품과 완주 청년 작가들이 대형 벽화를 협업한 체험형 전시로 운영한다.

반 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 시리즈 △자화상 시리즈 △별이 빛나는 밤 △아들의 침실 △사이프러스가 있는 밭밭 등 작품을 중심으로 내가 만드는 고흐 작품 꾸미기, 조명등 만들기, 작품 엽서 쓰기, 전통 머리장식꾸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특히, 고흐의 작품이 대형 벽화로 구성돼 있어 전시관 곳곳에 고흐의 작품 안으로 들어온 듯한 이색적인 포토존을 만나 볼 수 있다.

동시에 2024년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 공예품 공모전시가 제4전시관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린다.

지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노병득(금속공예), 이명택(전통기구공예), 이소영(다종이공예), 유희영(도예), 임경문(도예), 전설희(옹기공예), 최경호(목판공예) 7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완주군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공예품 작가들의 섬세한 솜씨가 담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제3전시관에서는 2024년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 공모전시에 선정된 6인(이동근, 이예복, 유승영, 강지음, 조화영, 김철규)의 작가들의 작품이 차례로 이어진다.

첫 주자로 새파란 파도 물결이 피부에 닿을 듯한 푸른 생동감과 그 위로 등실 때오



른 붉은 과일이 인상적인 이동근 작가의 ‘풍요+자연에 물들다’ 전시가 열리고 있다.

유혜태 완주군수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삼례문화예술촌을 사랑해주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술촌을 중심으로 삼례책박물관, 비비정 예술열차, 완주 문화역사 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이색적인 특별한 대표관광지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례문화예술촌 모든 관람료는 무료이며, 해설 및 체험 예약은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063-230-3862~3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삼례문화예술촌은 한국화 시리즈(신사임당·신윤복·김홍도·정선) 레플리카 전시, 지역작가 공모전시, 애니메이션·영화·마당놀이 등 상설공연, 버스킹 공연, 전국 보부상, 이간 플라마켓, 어린이 문화축제, 크리스마스 음악회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축제 운영으로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완주=염재복기자

http://council.jinan.go.kr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행복한 진안,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